

# 청천(聽川) 김진섭(金晉燮)의 수필세계2

외국문학 소개문과 해방이후 수필을 중심으로

김미영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한국현대문학 전공  
peace6539@hanmail.net

- I. 머리말: 기존의 김진섭 수필론이 간과한 부분들
- II. 외국문학 소개문들
- III. 조선의 문학적 현실과 관련된 평론들
- IV. 해방 이후의 정론적 수필들
- V. 맺음말: 국가부재시대의 외국문학 전공자의 역할과 한계

## I. 머리말: 기존의 김진섭 수필론이 간과한 부분들

청천(聽川) 김진섭(金晉燮)은 이양하, 피천득과 함께 이 땅에 근대적 수필을 정착시킨 한국의 대표적 수필가이다. 그는 동경 법정대학 독문과에 재학 중이던 1926년 6월 《동아일보》에 ‘김피구(金皮九)’란 필명으로 「독일 문호 토마스 만의 예술」(2회 연재)로 데뷔하였다. 그는 1927년 「무형의 교훈」<sup>1)</sup>을 발표하였고, 1930년 「모송론(母頌論)」 이후 본격적으로 수필창작에 나서 1930년대 후반, 사색과 서정성이 어우러진 「매화찬」과 「백설부(白雪賦)」를 발표해 한국수필의 격조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일상적 소재에서 깎끔한 통찰을 뽑아내어 수상록적 에세이에 가깝단 평을 받은 「명명철학」, 「우송」, 「창」 등은 한국수필사에서 드물게 철학적인 사색의 묘미가 돋보이는 산문들로 청천만의 이채로운 수필세계를 대변한다. 그는 또 「수필의 문학적 영역」, 「수필소론」, 「수필 문학에 대하여」에서 ‘수필’에 대한 양식적 고찰을 시도하여 수필이 한국문학사에서 독립적 양식으로 안착하는 데 일조하였다. 한국전쟁 중 남북될 때까지 20여 년간 200여 편의 수필을 발표한 그는 해방 이후 그중 일부를 묶어 『인생예찬』(동방문화사, 1947)과 『생활인의 철학』(신문사, 1948)을 펴냈다. 1950년 평론류와 외국문학 소개논문 17편으로 『교양의 문학』을 출간하려던 중 남북된 후<sup>2)</sup> 그가 부재하는 가운데 『교양의 문학』은 1955년 조선공업문화사와 진문사에서 출간되었고, 40편의 유작 수필은 『청천수필평론집』(신아사, 1958)에 묶였으며, 박종화가 서(序)를 쓴 『김진섭 미발표 수필선』(중앙일보·동양방송, 1978)도 간행되었다.

김진섭은 1903년 목포에서 태어나 부친을 따라 나주와 제주도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1916년 상경하여 1920년 양정고보를 졸업한 뒤 1921년 동경 호세이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927년에 독문과를 졸업했다.<sup>3)</sup> 이 무렵 발표한 「무형의 교훈」에서 그는 ‘일대의 한학자’였던 선친이 그와 형에게 한학을 ‘무겁게’ 교육시켰고, 그것이 당시엔 싫었으나 사람에게

1) 이 글은 원래 『가정지우』 1927년 7월호에 게재되었다가 같은 잡지 1939년 7월호에 재수록되었다. 김진섭, 선안나 편, 『김진섭 선집』(현대문학, 2011), 136-138쪽.(이하 동일한 김진섭의 책이 주석에서 반복될 때에는 책 제목만 표기함.)

2) 김진섭, 「법생기」, 『조광』, 1935. 9.(『생활인의 철학』(문예출판사, 1966), 285-287쪽.)

3) 위의 책, 288쪽.

교양이 중대한 요소임을 지금에서 깨달았으며, 자신의 장점인 온후한 성질, 욕심이 적은 것, 예의염치가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은 모두 부조(아빠 자-인용자 주)에게서 받은 ‘무형적 교훈’이라 적고 있다.<sup>4)</sup>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옛말을 제시하면서 사람의 몸가짐, 언변, 가문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을 무겁게 보는 것’이라 한 대목은 그가 보수적이고 온건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잘 보여준다.

동경 유학시절부터 ‘외국문학연구회’에서 활동해온 그는 1927년경 번역문제로 양주동과 논쟁을 한차례 치렀고, 1931년 이후 해외문학과 동료들과 함께 ‘극예술연구회’에서 활약하였다. 하지만 그는 1928년부터 1940년 1월 필화사건을 겪을 때까지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였다. 필화사건은 그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발표한 글의 반전사상이 문제가 된 일로, 그는 이 일로 인해 경찰서에 불려가 고초를 겪었으나 ‘서약서’만 쓰고 풀려났다.<sup>5)</sup> 이후 경성제대 도서관을 그만두고 경성중앙방송국으로 일자리를 옮긴 그는 거기서 해방을 맞았다. 1946년부터는 서울대와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서울대 도서관장을 거쳐 1949년에 서울대 독문학과 정식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1950년 8월 5일 청운동 자택에서 끌려간 후 서대문구치소에 잠시 억류되었다가 납북되었다. 1962년 북한의 한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악질반장의 살해를 주도하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sup>6)</sup>

그동안 수필은 문학연구에서 주변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 연유로 수필가 김진섭에 관한 연구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일부 논의들은 대개 그의 초기 수필들에만 주목한 것들이다. 해방에서 한국전쟁기까지 발표된 그의 수필들이나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외국문학 소개문, 조선문단에 관한 평론 등은 지금까지 연구 대상에서 누락되어 왔다. 이 글은 김진섭 수필세계에 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해 그간의 연구들이 간과한 부분들을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금까지

4) 김진섭, 「무형의 교훈」, 『가정지우』, 1939. 7. (『김진섭 선집』, 136-138쪽.)  
 5) 정진석, 「일제말기 『매일신보』 필화의 전말: 일제의 언론 탄압과 우리 문인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기록자료 발굴」, 『문학사상』, 통권 393호(2005.7.), 22-39쪽과 같은 잡지, 같은 호에 수록된 편집 팀 번역, 「김진섭 필화사건 비밀 문건」, 40-49쪽 참고.  
 6) 내외문제연구소 제공, 「죽음의 세월: 납북인사 북한생활기(49) - 中堅人士 勞動收容所로 惡質班長 殺害를 計劃 金晉燮이 主動」, 《동아일보》, 1962. 5. 29. (이동순, 「한국현대사 속의 가족서사: 수필가 김진섭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9(4), 한국문화융합학회(2017), 332쪽에서 재인용.)

이루어진 김진섭 수필에 관한 논의들을 간단히 일별해 보면, 그와 동시대를 산 문인들은 대개 그의 수필들에 찬사를 보냈다. 예컨대 김기림은 사람들이 수필을 ‘잡문’이나 ‘천박한 저널리즘의 부산물’ 썸으로 여길지 모르나 자신은 “각고(刻苦)의 흔적이 또렷또렷하게 드러나는 김진섭 씨의 함축 많은 일편의 수필에 대하여 누가 잡문의 류와 혼동할 불손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차라리 수필이야말로 소설의 뒤에 올 시대의 총아가 될 문학적 형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라고 평하였다.<sup>7)</sup> 김기림은 청천으로 인해 수필을 소설의 뒤를 이을 시대적 총아로까지 보게 된 것이다. 해외문학과와의 일원이었던 이하윤은 김진섭이야말로 “우리 문단의 수필가로서 독보적 존재”이며, “내용에 있어서나 스타일에 있어서나 가장 뛰어난 수필가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는 청천의 수필은 그냥 수필이 아니라 ‘에세이’에 속하는데,<sup>8)</sup> 성품이 과묵하고 진중한 만큼 필치 또한 “알뜰하고 품위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sup>9)</sup> 김진섭이 남북된 뒤 『청천수필평론집』과 『김진섭 미발표수필선』을 묶어낸 문우 박종화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수필다운 수필을 쓴 사람은 1930년대의 청천 김진섭”이라면서, 수필은 짧지만 “기막힌 철학”, “아름다운 미학”, “우주를 달관하고 인생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안광(眼光)”이 필요하며 “부정과 불의를 척결하는 야유(揶揄)와 회해(詼諧)”가 있어서 “만(萬)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떠한 무엇을 안겨 주”이어야 하는데, 청천의 수필이 바로 그 예라 칭찬하였다.<sup>10)</sup>

후대에 김진섭 수필집에 발문을 쓴 평론가들도 청천의 수필들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먼저 신동한은 청천의 수필은 신변잡기나 견문의 두서없는 나열, 자기넋두리에서 벗어나 서양에세이의 경지에 도달한 우리문학사의 첫 사례로 “자기 사색을 거친 정돈된 문장”들을 보여준다고 평했다.<sup>11)</sup> 김형석은 “예술성을 띠고 있는 길지 않은 글”이 수필인데, 김진섭의 수필이야말로 수필의 전통성을 잘 지킨 글들로 “생활 예술적 작품”이라

7) 김기림, 「수필·불안·가톨릭시즘」, 『신동아』 23호 3권 9호(1933. 9.)(『김기림 전집3』(심설당, 1988), 109-110쪽.)

8) 이하윤, 「잡문과 수필」, 《동아일보》, 1940. 3. 15, 3면.

9) 이하윤, 「수필가의 총아: 청천과의 교우록」, 『인생예찬』(문예출판사, 1969), 290쪽.

10) 박종화, 「서문: 청천을 생각하며」, 김진섭, 『김진섭 미발표 수필선』(중앙일보·동양방송, 1978), 4-7쪽.

11) 신동한, 「생활과 사색의 글들: 김진섭 론」, 김진섭, 『백설부』(범우사, 1976), 13-19쪽.

평했다.<sup>12)</sup> 류경동은 청천의 수필은 ‘관조와 성찰’이 특징인 바, “생활에서 착안해 철학적 성찰로 이어지는 무형식의 글쓰기”로, 시속에 거리를 둔 필자의 문사적 기질과 한학적 소양에서 배태된 고전주의적 성향, 외국문학 전공자로서의 도시적 감수성이 혼용된 결과로 보았다. 김진섭이 강조한 ‘생활’은 “구체적인 일상과 인생 전반의 실천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그의 생활철학 수필들은 “학문의 그물로 포착할 수 없는” 경험에서 철학적 깨달음을 얻는 ‘성찰적 글쓰기’의 좋은 사례라는 것이다.<sup>13)</sup>

한편, 김진섭 수필의 한계에 주목한 연구자들도 있다. 김윤식은 청천이 ‘생활’을 강조하였지만 실상 그의 수필에서 생활은 별시의 대상이자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고 그 자리를 ‘관념’이 대신하고 있다면서, 그의 수필은 한마디로 ‘비생활인의 철학’이라 비판하였다. ‘체험으로서의 고향이 없는’ 청천은 그 ‘시적 결락’을 ‘관념’으로 극복하려 했고, 이는 곧 ‘서정의 결여’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 청천은 ‘삶의 예지’에 해당하는 것을 굳이 ‘철학’이라 부르는데, 이는 독문학을 전공한 그가 독일 관념철학에 대해 품고 있는 ‘병적 동경’을 보여주며, 이 점이야말로 헤겔의 ‘낭만적 이로니(Ironic)’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윤식은 한국문학사에서 김진섭 수필이 갖는 긍정성은 관념어로서 한국어가 갖는 탄력성을 입증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1930년대 한국어는 상허나 지용의 토속적·내간체적·비문화적·감각어적 지향이 주류였는데 청천의 수필은 한국어가 관념어로서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실험적 도전이었다는 것이다.<sup>14)</sup> 한편, 방민호의 김진섭론도 비판적인 편이다. 그는 김진섭이 도쿄 유학시절 해외문학과의 일원으로 조선에 외국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로 문단에 발을 들인 후 1931년부터 극예술연구회에서 번역극 운동을 하였고, 『해외문학』에 「표현주의 문학론」을 소개하는 등 첨단적인 외국문학 수용에 주력하였으나, 이는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등과 같은 민족주의 문학가들의 절박한 사명감이나 카프 문인들처럼 현실을 바꾸려 ‘행동’에 뛰어드는 차원이 아닌, ‘교양의 수준’에서 새로운 문예사조를 추구한 ‘딜레탕티즘’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인생사에 대한

12) 김형석, 「추천하는 글」, 김진섭,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앞선 책, 1994), 8-9쪽.

13) 류경동, 「해설: 관조와 성찰의 글쓰기」, 김진섭, 류경동 편, 『김진섭 수필 선집』(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7), 267-274쪽.

14) 김윤식, 「비(非)생활인의 철학」, 수필문우회, 『엽서를 보내는 마음으로』(범양사, 1986), 289-296쪽.

“방관적 태도”로 “숨김없이 자기를 말”하는 글이 수필이라는 청천의 수필관에서 전자에는 딜레탕티즘이, 후자에는 자기표현에의 욕구가 드러날 뿐이며, ‘생활’의 목적은 ‘생활하는 것’이라는 청천의 인식이야말로 김진섭이 인간을 초역사적 실체로 간주하였음을 여지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하였다.<sup>15)</sup>

장인수도 김진섭 수필의 핵심을 ‘교양주의’로 본 것에서는 방민호와 동일하나, 그는 교양주의의 연원이 일본 대학교 문학부에 있음을 논증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청천 수필에 대해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퇴조한 1936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에서는 ‘쇼와 교양주의’가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학생총서의 간행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으며, 내면도야에 관심이 많았던 ‘다이쇼 교양주의’와 달리 ‘쇼와 교양주의’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는데 1936-1939년에 집중 발표된 김진섭의 수필에서도 사회문제에 대한 강한 관심이 포착됨에 주목하여 장인수는 김진섭의 지식을 기초로 한 에세이들이 『개조』나 『중앙공론』과 같은 종합지와 『사상』, 『철학연구』 등의 사상철학 잡지를 애독한 데에서 획득한 교양지에 독문학적 이해가 더해져 탄생된 것으로 설명한다.<sup>16)</sup>

이상에서 일별해본 김진섭 수필에 관한 기존의 분석들은 찬사든 비판적 이해든 모두 『인생예찬』(1947)과 『생활인의 철학』(1948)에 논의가 국한되어 있어 문제이다. 김진섭이 생전 간행한 두 권의 수필집에는 해방 이후 수필들과 외국문학을 소개한 글들, 번역론 등 조선문단에 대해 발언한 문학평론적인 글들이 다수 빠져 있다. 그동안 ‘주변적 장르’로 간주되어온 수필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시점이고, 그 맨 앞자리에 김진섭이 놓여 있다. 이 글은 온전한 김진섭 문학론 구성을 위해 그의 외국문학 소개문들, 조선문단에 관한 평론들, 해방 이후 수필들의 내용을 우선 찬찬히 살피고자 한다. 해방 이전에 발표한 외국문학 소개문이나 조선문학이나 문단에 관한 발언들도 문학평론의 일종으로 중수필인 에세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 글의 논의는 그동안 김진섭에 관한 논의들이 주목해온 『인생예찬』과 『생활인의 철학』에 실린 수필들보다 간과해온 『교양의 문학』, 『청천수필평론집』, 『김진섭 미발표 수필선』

15) 방민호, 「김진섭 수필 문학과 ‘생활’의 의미」, 『어두운 시대의 빛과 꽃: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2003-2004』(민음사, 2004), 161-179쪽.

16) 장인수, 「이헌구와 와세다대학교 문학부 교양주의: 교양, 대중, 엘리트주의」, 『한민족 문화연구』 40집(2012), 352-356쪽.

에 수록된 수필들에 보다 집중될 것이다.

## II. 외국문학 소개문들

김진섭은 '외국문학연구회'의 일원으로 『해외문학』의 발간을 주도했다. 창간호에서 해외문학파들은 일본어 번역본의 중역이 아닌, '조선어의 맛'을 살린 직접 번역으로 조선신문학 발전에 기여하겠노라 기염을 토했다.<sup>17)</sup> 하지만 김진섭이 외국문학을 직접 번역한 예는 시 몇 편이 전부이다. 그는 해외문단의 동향을 소개한 글에서도 이를 제목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국 작가나 작품에 대해 매우 자주 이야기한 편인데, 이들을 그는 주로 문학 일반에 관한 글의 예시로 거론하고 있다. "조선 사람이 조선을 너무도 모른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고전담구의 의의」를 보면, 그는 「교양」을 "역사를 기억하는 것", 혹은 "세상의 모든 집안(가정)이 제각각 감추고 있는, 그리하여 그 집안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다른 가족은 알 바 없는 특이한 지식과 같은 것"이라 정의하고, 조선을 '소가정'에, 세계를 '대가족'에 비유한다. 이어 조선인이 소가정적인 회상만 가지고 있으면 교양 있는 대가족과 만나 교담(交談)할 수 없기에 조선인도 세계라는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호우머'와 '삼포오', '프리트 히르테란'에 대한 회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즉, 조선인도 세계적 고전을 읽고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여기까지의 논의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조선의 문학적 유산은 빈약하다고 단언한 후, 그러나 그것은 조선인에게는 의미가 있으므로 살려 키우면서 우리(조선)에게 없는 "좋은 것"은 외국에서 구하여 '적응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응시킨다'는 것은 조선의 현실에 맞게 각색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조선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조선신문화 건설에 활용할 수 있게 함을 뜻한다. 그는 서양의

17) 『해외문학』은 1927년 1월에 창간호에서 "우리가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결코 외국문학 연구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요, 첫째로 우리 문학의 건설, 둘째로 세계문학의 상호범위(相互範圍)를 넓히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1927년 7월에 2호를 낸 후 중단되었다.

18) 김진섭, 「고전담구의 의의」, 『교양의 문학』(진문사, 1955), 34-36쪽.

역사는 ‘햄렛’을, 조선의 역사는 ‘홍보’를 가졌으나 전자가 더 우월한데 이유는 ‘햄렛’은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창조적 근원’이 될 수 있으나 ‘홍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조선 고전에 대한 천명(闡明)한 물론 우리에게 조선학의 학자 되는 기회를 다분히 약속하여 준다. 그러나 이 좋은 결과가 다른 나라 사람의 고전을 탐구함으로써 의하여 시대의 진행에 공헌하는바 동력을 주리라는 확신을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것은 불행하다. …… 우리의 이성은 과연 그것(춘향전이나 시조와 향가)이 문학으로서 가치가 적음을 주장치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터임을 나는 두려워하는 자이다. …… 우리가 조선의 고전문학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실로 그 풍부한 역사적 재료에 틀림없다. 역사적 서술에 있어서나 또는 문학적 구성에 있어서나 한 가지 그 연구가 많은 지장을 야기(惹起)시키는 바, 이 역사적 재료란 물론 그 자체가 처한 것을 실하게 하는 바 창조적 근원은 아니다.<sup>19)</sup>(강조는 필자)

외국인이 ‘홍보’를 고전으로 탐구하여 시대에 공헌하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시공간과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문화 산물인 ‘햄렛’과 ‘홍보’를 동일한 잣대로 단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자 한 성급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읽힌다. 또 「문학과 문명」에서 그는 “문명이라는 거대한 생활구조, 생활내용은 한 개의 문학재료로서 문학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휘트먼의 말을 인용하고는, 그러나 서양식 물질문명은 전적으로 긍정할 수만 없다면 물질문명의 병폐와 한계를 비판하고 자연으로의 복귀를 주창한 ‘루쏘오’와 ‘폴 고오강’을 소개한다.<sup>20)</sup> 이들에서 그는 시인, 사상가, 화가를 다채롭게 언급하면서 교양의 수준에서 문학과 문명의 관계를 설명하려 시도하였으나, 그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천재와 정력」에서는 ‘스튜린베리’에서 ‘스탕달’까지 서양의 천재적 작가 몇을 들고 그들이 “얼마만한 정도의 정력과 얼마만한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얼마나 되는 수와 양의 작품을 내놓았는가”라며 감탄을 연발하기도 한다.<sup>21)</sup> 이는 두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 놀라운 독서량과 그에 따른 서구문화와 예술에 대한 그의 방대한 지식량이다. 그는 많은 외국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매우 세세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문인의 匿名 로맨스」

19) 위의 책, 39-40쪽.

20) 김진섭, 「문학과 문명」, 『교양의 문학』(진문사, 1955), 156-164쪽.

21) 김진섭, 「천재와 정력」, 위의 책, 165-175쪽.



를 보면, ‘호오머’로부터 ‘노발리스’, ‘쉴러’, ‘몰리에르’, ‘볼테르’ 등 문인들의 이름이 기실 예명이며, 이들이 본명을 숨기고 예명으로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들까지 소개하고 있을 정도다.<sup>22)</sup> 둘째, 외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선망과 흠모의 시선이 또렷하게 읽히는데, 이는 자민족 문학에 대한 실망감의 이면일 수 있다. 이런 면모에는 외국문학을 전공한 식민지 엘리트 1세대의 일면 통과외래적일 수도 있는 한계가 가감 없이 노출되어 있다.

김진섭은 특히 독일의 토마스 만과 괴테에 관심이 많았다. 토마스 만은 김진섭이 학창시절 ‘김피구’란 필명으로 발표한 데뷔작 「독일 문호 토마스 만의 예술」에서부터 등장한다. 토마스 만은 당시 일본과 조선 문단에서 번역된 적이 없는 작가였다. 김진섭은 토마스 만의 생애를 약술한 후 대표작 『붓텐부르크家』, 『트리스탄』, 『토-니오 크래게르』를 차례로 소개한다. 토마스 만을 표현주의 작가로 본 그는 토마스 만이 생활인이 아닌, 예술가로서 생활의 ‘겉’에서 간접체험을 통해 감정을 배제하고 인생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예술가적 고통을 체험하는 가운데 표현과 내용의 풍부에 이르렀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는 ‘생활의 겉’과 ‘간접’ 체험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수필의 문학적 영역」(《동아일보》, 1939. 3. 14.-23.)에서 제시한 수필관, 즉,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생활’로부터 한발 떨어진, 즉, 무연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사색하여 얻은 인식(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이 수필이라면서 이를 “방관자적” 태도로 “숨김없이 자기를 말하는”이라 표현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sup>23)</sup> 또한 이 글에서 그는 『토-니오 크래게르』에서 ‘토니오’가 벗인 여류화가 ‘리자베타’와 나누는 대화(생활이냐 예술이냐) 장면을 직접 번역하고 있다. 생활을 사랑하며 ‘평범의 환희’를 노래하는 ‘리자베타’와 생활인으로서 자기를 버리고 창작과 인식의 고통을 떠안고 ‘저주’로서의 삶인 예술가의 길을 가는 ‘토니오’를 대비시킨 후 그는 ‘평범’은 싫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글을 끝맺고 있다.<sup>24)</sup> 즉, 유학생 시절 그는 평범한 생활인보다 예술가의 길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22) 김진섭, 「문인의 익명 로맨스」, 위의 책, 194-201쪽.

23) 김진섭, 『교양의 문학』(진문사, 1955), 128-132쪽.

24) 김진섭은 ‘김피구(金皮九)’란 필명으로 「독일문호 토마스만의 예술」(《동아일보》, 1926. 6. 15.-19.)로 문단에 데뷔했다. 이 글 2회분 끝에 ‘6월 6일 나주에서’라는 작성 시점 표기가 있다.

이후에 발표된 수필들, 즉 『인생예찬』과 『생활인의 철학』에 수록된 글들에서 그는 ‘예술가가 아닌, ‘생활인’의 삶을 추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아무튼 「독일 문호 토마스 만의 예술」은 그가 데뷔시절부터 ‘생활인’ vs ‘예술가의 삶’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인생을 바라보았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외국문학연구회’ 회원으로 문학과 인연을 맺었으나 실제로 번역은 거의 하지 않았고,<sup>25)</sup>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극예술연구회’에서 신극운동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1930년대 후반 이후 상황이 열악해지자 도서관의 사서로 생활하면서 ‘예술가’의 길이 아닌, ‘생활인’의 삶과 지혜를 강조하는 수필가로 변신하였던 것이다.

김진섭에게 독문학의 ‘첫사랑’이 토마스 만이라면, 평생 흠모한 상대는 현자 ‘괴테’였다. 그는 괴테를 제목에 내세운 「괴테와 담배」,<sup>26)</sup> 「괴테의 범람」,<sup>27)</sup> 「현자(賢者) 괴테」 등을 썼고, 많은 문학 관련 평문에서 괴테를 거의 매번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파우스트』의 작가인 문인 괴테보다 생활의 지혜를 깨달은 ‘현자(賢者) 괴테’에 관심이 많았다. 「현자(賢者) 괴테」에서 그는 괴테가 “모든 상태를 자유로움과 賢明함을 가지고 概觀하는 바 저 精神”에 다름없는 ‘지혜’를 지닌 인류 최고의 현자라 꼽았다. 이어 그는 정신으로서 ‘지혜’는 ‘放膽과 自制’의 동시적 발현이라 말한다. 괴테는 스스로를 ‘人間理解者’라 칭했는데, 고답적인 학문이나 정치를 멀리하고 실생활에서 터득한 ‘생활의 지혜’를 기초로 생활을 향락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김진섭은 괴테의 사상은 시대와 인종을 떠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간일반론’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괴테의 범람」에서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괴테가 너무 유행하여 자신은 오히려 괴테를 논구하지 않겠노라 선언하기

25) 이유는 1927년 양주동과 번역논쟁을 치르면서 받은 상처와 당시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웬만한 책들은 이미 일본인들이 일본어로 모두 번역해둔 상태여서 구태여 그것을 다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진섭, 「번역과 문화」, 《조선일보》, 1935. 5. (『교양의 문학』(진문사, 1955), 44-78쪽.)

26) 김진섭은 담배에 대한 혐오감이 심했던 괴테가 ‘꺽연(喫煙)’에 대해 문화비평적 담론을 펼쳤음을 전한다. 김진섭, 「괴테와 담배」, 김진섭, 박종화 서, 『김진섭 미발표 수필선』(중앙일보·동양방송, 1978), 100쪽.

27) 독일 정신문화에서 괴테의 영향력은 지대하고 자신도 괴테에 대한 정신적 교의(交誼)가 없지 않지만, 자신은 ‘특수성에 침윤하는 재능’이 있어 ‘보편성을 대표하는 최대의 인물인 괴테’를 유감스럽게도 토구(討究)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진섭, 「괴테의 범람」, 『생활인의 철학』(문예출판사, 1966), 265쪽.

28) 김진섭, 「현자 괴테」, 《동아일보》, 1932. 3. 22. (『교양의 문학』(진문사, 1955), 209-211쪽.)

도 한다. 어쨌든 그가 괴테에게서 받은 영향의 정도는 『인생예찬』과 『생활인의 철학』을 관통하는 사상이 괴테의 생활인의 철학, 즉, ‘예지입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sup>29)</sup>

장문의 논문 「소설의 도(道)」에는 김진섭의 소설관이 피력되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희랍신화에서 시작하여 ‘괴테’와 ‘스탕달’을 거쳐 독일의 신예 ‘크누루트 함준’과 ‘J.폰텐’과 ‘토마스 만’의 최신작까지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sup>30)</sup> 그는 소설의 주인공은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시대적 함의’를 드러내는 ‘전형’이어야 하는바, 이런 사례로 헷세의 『데미안』과 알폰 파웨의 『친우 플레밍』을 든다. 세계대전 이후 소설계에서 ‘새로운 인간전형’의 탐구에 관해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면서, 작금의 소설은 ‘교양학적 예술작품’, 즉, “인간과 세계와 사회의 대요를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시대적 전형’의 창조와 ‘교양학적 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는 ‘뮤질’의 대작들과 ‘지이드’의 『화폐위조자』, ‘조이스’의 『율리시즈』와 영국 D.H.로렌스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꼽았다. 또 독일 관념소설에 영향 받은 영국 ‘찰스 모르겐’의 『천(泉)』은 “움직이는 정밀(靜謐)을 가진 인간전형”을 잘 묘사하여 현대소설의 향방을 암시하였으며, 독일의 ‘도스토예프스키’라 불리는 ‘크누루트 함준’의 『그러나 인생은 산다』는 등장인물을 다루는 솜씨가 신의 경지이며 난해한 문체조차 심리적 표현에 잘 어우러져 있어 걸작이라 평하였다. ‘폰텐’의 대 장편들은 독일정신과 ‘형성 도상의 국민’에 대한 대기록물이며, 토마스 만의 신작들과 한스 카룟사의 ‘사적 소설’들, 신예 ‘메호브’의 연애소설 『초하(初夏)』까지를 그는 분석하고 있다.<sup>31)</sup> 「소설의 도(道)」에는 그의 독문학적 지식과 오랜 도서관 사서생활에서 섭렵한 서구문예사에 대한 폭넓은 교양이 잘 드러나 있다. 논의가 다소 장황하고 생경한 외국 작가와 작품이

29) 김진섭, 「생활의 향락」, 『인생예찬』(현대문화사, 1947), 18-20쪽;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생활인의 철학』(문예출판사, 1966), 22쪽.

30) 김진섭은 이 글에서 『붓텐부록家』와 『魔山』의 작가 토마스 만은 최근 성경에서 모티프를 차용한 3部曲 「요셉과 그의 형제」(1934)를 발표하였는데, 진부하고도 평범한 전설을 새롭게 해석하여 “누구나 믿지 않을 수 없는 작품”으로 재탄생시켰고, 특히 종교적인 “내용의 신비와 서언과 수호와 우의로 둘러싸인” 이야기를 “남김없이 小説體로 飛揚”시켜 현대인의 언어와 사상 양식의 경이로운 재현에 성공하여 역사적 작품을 탄생시켰다고 극찬하였다. 김진섭, 「소설의 도(道)」, 《조선일보》, 1935. 5. (『교양의 문학』(진문사, 1955), 89-91쪽.)

31) 위의 글, 79-92쪽.

과도하게 나열된 감이 없지 않으나, 이 글에서 그는 외국문학의 동향 파악을 통해 조선소설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섭의 평론들에 나타난 그의 진짜 관심사는 문학이 아닌, 사유(철학)하는 방식과 그 과정으로서 ‘글쓰기’, 또 그 결과물인 ‘서책’에 있었다. 「칸트철학에 대하여: 표현의 생산성의 문제」에서 그는 괴테를 현자(賢者) 또는 철학자로 보아 칸트와 함께 논한다. 그는 “확실히 天才에 있거나 우리 普通人에 있거나 다 같이 우리는 봄으로 依하여 어떠한 事物을 認識함보다도 또한 思惟함으로 依하여 어떠한 概念을 構成함보다도 보다 完全히 우리는 對象을 붓으로 쓰고 그림으로 依하여 征服할 수가 있다. 表現은 目擊함보다도, 思惟함보다도 보다 確實하고 보다 強迫的의 對象에 對한 具體化인 까닭이다.”라고 하면서 사유가 정돈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으로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사유는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표현(글쓰기)을 통해 창조되기도 하기에 표현(글쓰기)은 사유의 핵심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칸트의 철학도 칸트 자신보다 더 명증하게 그것을 정리해낸 ‘에른스트 마르쿠스’의 칸트철학에 관한 책에서 그 전모가 잘 드러난다면 이를 표현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예로 삼고 있다. 또한 범인(凡人)의 지식이나 인식은 ‘표현’이 그것의 의식적인 명확함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괴테나 칸트와 같은 천재들의 인식은 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적 부분들까지 계속 새롭게 읽어낼 수 있음에서 차별화된다고 말한다.<sup>32)</sup> 김진섭은 무의식적 인식을 내포한 사색을 했던 칸트와 괴테의 사유능력과 천재들의 무의식적 의미까지 읽어낸 후학들의 글쓰기의 생산성을 동시에 칭송하고 있다. 칸트철학을 읽고 해석하는 자는 칸트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읽어낼 수 있는데, 이는 붓을 들어 글을 쓰는 과정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김진섭은 사고의 창작과정인 1차 저작활동과 그 책의 의미를 풍성히 캐내는 2차적 글쓰기까지, 모든 사유과정과 그 결과물로서 글(서책)의 가치를 고평하였다. 또 ‘서책’을 귀히 다룰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향유인 ‘독서’를 예찬하였다.

김진섭의 철학하기, 사유하기에 대한 관심은 「“그것은 이론으로서는

32) 김진섭, 「칸트철학에 대하여: 표현의 생산성의 문제」, 『청천수필평론집』(신아사, 1958), 80-90쪽.

합리로우지 모르나 실제에 있어서는 오류다”라는 명제에 대하여」라는 긴 제목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옳으나 실제에서는 오류라는 말을 하는 ‘실제’가 많이 많은데,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임을 쇼펜하우어의 독일어 원문을 인용하여 논증한다. ‘이론’의 목표는 ‘지식’이고 ‘실제’의 목표는 ‘행위’이므로 둘은 영역이 서로 다른데, 자신은 양자의 적절한 융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론의 대표자인 형이상학에서는 수천의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해결’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반대로 실제의 영역에서는 ‘행위’를 목표로 하나의 답을 찾아 타인의 승인을 받아내곤 한다면서 ‘회프딩그(Hoeffding)’의 “해결은 사멸하여도 문제는 의연히 살아남는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소크라테스 시대의 문제가 현재까지도 유효함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현가능성을 중시하는 ‘실제’의 세계와 ‘可答’을 중시하는 ‘이론’의 세계가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 “이론적으로는 옳으나 실제로는 오류”라는 ‘실제’의 명제는 이론가를 긴박(緊縛)할만치 ‘힘 세인 명제’로 절대화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33)</sup> 간단한 ‘oxymoron’(矛盾語法)의 명제를 매우 복잡하게 설명한 이 글은 그의 관심사가 명제의 진위를 논증하는 등,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 그는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지향한다고 공언하였으나, 그의 성향은 다소 관념적인 데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김진섭의 외국문학 소개문들을 살펴본 결과, 일단 그 주제들이 당시 조선문단의 당면 과제에 밀착되지 않는, 소설 일반론이거나 교양적 차원의 사유(철학)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진섭의 선진유럽의 문화예술에 대한 선망과 자민족 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이런 그의 경향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된다. 『우리공론』에 수록한 「難破세계-세계정부론」은 1947년 그가 좌우의 단체들에 폭넓게 관여하던 무렵의 글이다.<sup>34)</sup> ‘국가재건’론을 둘러싸고 정부형태를 모색해본 이 글에서 그는 ‘존 듀우위’(John Dewey)와 ‘에머리 리이브스’(Emery Reves)의 세계정부론과 그에 대한 ‘니버어’(Reinhold Niebuhr)의 반론을 소개한 뒤, 후자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듀이는 『세계정부론』에서 세계가 나날이

33) 김진섭, 「“그것은 理論으로서는 合理로우지 모르나 實際에 있어서는 誤謬다”라는 命題에 對하여」, 위의 책, 91-98쪽.

34) 당시 김진섭은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와 조선문학동맹, 한국문학가협회 등에 관여했다. 이동순, 앞의 논문(2017), 327쪽.

하나로 묶여 가지만 그들에게 ‘세계사회(the world society)’란 고향은 없으니 세계인은 동일한 법률 하에 살 수 있는 정치기관을 만들어 상호간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자며 ‘세계정부론’을 주장한다. 듀이는 미국 연방 정부를 모델로 세계적 확장 형태를 제안한 것이다. 리브스는 2차 세계대전 후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심지어 최강국조차 자급자족적이지 못함에 주목하고, 민주적 세계조직을 만들어 그 아래 각 국가를 두고 국가 간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세계정부론’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진보적 크리스찬 대표인 ‘니버어’ 교수가 이들에 반론하였다. 그는 『세계정부의 신화』에서 두 가지 논거로 세계정부론을 비판하였다. 첫째, 국가는 정부와 법률 공동체인데, 정부의 권위는 공동체의 권위에서 나오며, 이는 역사적 과정을 갖는다. 둘째, 국가공동체는 언어적, 지리적, 역사적, 기타 사회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힘을 가지고 있다. 니버어는 ‘세계공동체’의 구성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일 수밖에 없고, 역사적 과정이 없이 강권의 발동으로 구성한다면 결국 상호파멸을 유발하고 평화의 창조력과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보았다. 김진섭은 듀이와 리브스의 주장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얕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비판하고, 현재 전 세계는 난파국면에 처해 있어 각자 자신을 구제하기에 급급하다는 입센의 말을 가져와서 니버어의 현실론에 동조한다. 특히 조선은 난파의 정도가 극심해 가족조차 분리되어 해체위기를 맞고 있어 각 개인은 자신의 구제, 즉 생명보전에 급급한 처지임을 환기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고 있다.<sup>35)</sup> 「難破세계-세계정부론」은 일단 일제강점기엔 독일을 중심으로 선진유럽에 맞추어져 있다가 해방 이후엔 그의 관심이 ‘亞米利加’(미국)로 옮겨감을 보여준다. 또 그가 민족이 직면한 문제의 해법을 구미열강에서 찾고자 하며, 자신은 그들을 조선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자임하였음도 확인된다. 하지만 당시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선택을 놓고 고민하던 시기였음을 상기하면, 그가 세계정부론과 국민국가론을 대립시켜 놓고 고민한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논의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의견에 대하여」에서도 그는 “건국 대업을 앞둔 우리가 전부 허망한 자기의 의견에만 구니(拘泥)하고 만족하는 나머지 공동적으로 전 민족에 관계되는 중대 사실을 등한시

35) 김진섭, 「난파세계: 세계정부론」, 『우리공론』, 1947. 4.(『교양의 문학』(진문사, 1955), 149-155쪽.)

할 때 멸망 이외에 무엇이 그곳으로부터 출래(出來)하겠느냐”고 주장한다.<sup>36)</sup> 즉, 모든 의견을 국민국가의 건립에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된 후 군정기간 동안 미국은 조선에서 점령군과 해방군으로서 모순적 이중성을 드러냈다. 당시 지식인들은 일제의 잔재 청산과 무정부적 혼란 상태의 빠른 종식으로 근대적 주권국가를 수립하고자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섭도 일제강점기와 달리 현실 참여적 활동을 활발히 개진하는 가운데 계몽적 글을 통해 국가건립을 끊임없이 외쳤다. 하지만 그의 논의는 사상적 대립이란 문제는 건너뛴 채 ‘국가재건’이란 시대적 당위만을 반복한 것이었고, 미국을 효칙할 모델로 설정함으로써 미국을 이상화한 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 Ⅲ. 조선의 문학적 현실과 관련된 평론들

애장품을 소개하는 글을 청탁받은 김진섭은 ‘내 집이 아닌 집에 살면서 가진 것이라고는 “생략할 수 없는 ‘술’과 ‘마누라’ 밖에 없다”라고 답한 수필을 썼다.<sup>37)</sup> 이렇듯 검약하면서도 진중했던 그는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조선문학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가 조선문단과 관련해 한 발언은 딱 두 가지다. 조선은 문화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없어 문인들이 글로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이런 현실이 조선문단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외국문학 전공자로서 자신의 번역관을 피력한 것이 그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외국문학을 전공한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김진섭도 조선문학이 빈약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외문학파로 불문학을 전공한 이현구의 경우는 조선에는 문학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조선문학은 어데로」에서 그는 “조선문학-이와 같이 빈약한, 무력한 명사는 없을 것이다.”라면서 조선도, 조선문학도, 조선문단도 모두 빈약하다는 절망적 인식을 노골화하였다.<sup>38)</sup> 해외문학파의 눈높이에서 보면 당시 조선문학은

36) 김진섭, 「의견에 대하여」, 1947. 6.(『김진섭 선집』(현대문학, 2011), 233-235쪽.)

37) 김진섭, 「내가 가진 귀중품」, 『조광』, 1935. 9.(『청천수필평론집』(신아사, 1958), 258-259쪽에서 재인용.)

‘빈약해 보였을 터인데, 이런 인식에 오래 사로잡혀 있을수록 외국문학에 대한 동경 속을 헤매며 생경한 외국이론이나 외국작가를 소개하는 데서 지적 우월감을 확인하려 드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sup>39)</sup> 이현구와 달리, 김진섭은 조선문단이 빈약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어떠한 관점에 있어서든지 조선이 전체적으로 문학을 애호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적어도 오늘에 있어서 부정하여 버리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느 구석에서 문학애호의 작작(縹緲)한 정신이 흘러날 상 싶지는 않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조선은 문학에 전연 무지하다고 극언할 수가 있다. …… 조선이 일반적으로 문학 기타의 예술을 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환경을 생각할 때 당연한 감이 없지 않다. 신문학의 역사가 길지 못한다다가 전적으로 생활의 자원이 결핍한지라 민중은 문학 일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더구나 문학이 호구지책으로서는 최악의 업이라는 경제적 사실은 문인 자신의 문학에 대한 애호심까지를 항상 위협하여 여기서는 흔히 문학 자체의 성립조차 의심스러운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sup>40)</sup>(강조는 인용자)

그가 꼽은 것은 우선 신문학의 역사가 일천하고, 민중이 가난하여 문학과 예술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며, 문인들이 글만 써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실정이라 문인 자신의 문학애호심마저 바닥날 지경인 현실이었다. 하여 그는 「문인과 직업의 문제」에서 조선의 문인들은 생계를 위한 직업을 따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문인의 생계형 직업이 사실상 조선 문단을 지탱해주는 근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직업으로 낭비되는 정력과 시간이 짧은 문인들의 문학적 정열을 식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것도 충고하였다. 그는 이무영의 「제일과 제일장」(『인문평론』, 창간호)에 그려진 유직 문인의 내적 투쟁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문학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유럽에서도 문인이 직업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슈페만의 「직업의 신비」라는 글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슈페만의 주장은 “1. 직업은 문학자의 문학을 방해하지 않는다.

38) 이현구, 「조선문학은 어데로」, 『모색의 도정』(정음사, 1965), 8-9쪽.

39) 이현구와 임화 사이의 해외문학과 논쟁을 조운정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조운정, 「번역가의 과제, 글쓰기의 윤리: 임화와 해외문학과 논쟁적 글쓰기」, 『반교어문연구』, 27권(2009), 389쪽.

40) 김진섭, 「조선과 문학 애호심」, 《조선일보》, 1934. 11. (『교양의 문학』(진문사, 1955), 19-21쪽.)



2. 직업이 있는 문인은 돈을 벌기 위한 글은 쓰지 않아도 된다. 3. 직업이 있어야 문인은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고, 허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또 무직 문인의 문제점으로서는 “1. 무의무감(無義務感)은 독소가 되어 문인의 정신세계를 파괴할 것이다. 2. 생활인과의 접촉 기회를 잃게 된다. 3. 세상과의 공감능력을 차츰 상실하게 되어 무하유향(無何有鄉)에 부유(浮游)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들었다.<sup>41)</sup>

하지만 독문학을 전공한 김진섭이 조선문단과 관련해 심혈을 기울여 의견을 개진한 것은 번역론이었다. 『교양의 문학』에 수록된 「번역과 문화」(『조선일보』, 1935. 5.)는 번역관을 집대성한 장문의 논문으로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1. 생활의 국제화, 2. 문화의 교권, 3. 세계문학의 개념, 4. 번역의 문화적 역할, 5. 번역의 가치, 6. 문화의 폭사적 영향, 7. 문화의 일대집성, 8. 번역가의 문화적 사명, 9. 번역의 한계, 10. 번역문학론, 11. 번역술, 12. 조선과 번역문화이다. 타칭 ‘해외문화파’였던 그는 1927년 이하운이 번역한 베를렌스의 시 〈가을노래〉를 둘러싸고 양주동과 논쟁을 벌였다. 『해외문학』이 출간되기 4년 전에 『금성』을 창간하여 번역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양주동이 『해외문학』에 실린 번역작에 대해 1) 자국어에 있는데도 난잡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2) 의역보다는 축자적 직역을 시도하였으며, 3) 비어(非語), 외래어,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비판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외국문학연구회의 이하운과 김진섭이 반론에 나섰다.<sup>42)</sup> 특히 김진섭은 4개 국어의 번역작들을 수록한 『해외문학』에 대해 양주동이 어느 정도의 어학실력을 갖추었길래 함부로 비판을 일삼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격앙된 어투로 그는 완전한 번역은 없음을 전제하고 문화적 사정이 달라 번역 과정에서 신조어가 생길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그런 신조어가 생경할 수 있겠지만 곧 이는 자국어에 흡수되어 결국에는 자국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논쟁 후 7-8년이 지난 후에 발표한 「번역과 문화」에서 그는 ‘美와 智’는 어느 곳에서 생산되었든 인류 공유의 자산이며, ‘세계심’이란 인류

41) 김진섭, 「문인과 직업의 문제」, 《동아일보》, 1939. 10.(위의 책, 133-140쪽.)

42) 이하운, 「해외문학 독자 양주동씨에게」, 《동아일보》, 1927. 3. 19; 김진섭, 「기이한 비평현상: 양주동씨에게」, 《동아일보》, 1927. 3. 22.-3. 26.(전5회 연재)

공통의 요소가 있어서 언어와 민족적 개성, 역사가 달라도 문화의 세계적 교류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괴테의 ‘세계문학’론에 기대어 논의를 펼쳤는데, 괴테는 각국에서 생산된 문학들 전체를 지칭하는 ‘세계문학’이란 개념 외에도 세계어로 번역이 된 작품들을 하위 부분으로 하면서 그들을 관통하는 ‘통일체로서의 문학’, 즉, ‘세계심’을 드러낸 높은 수준의 문학을 ‘세계문학’이라 하였다. 김진섭은 번역자란 ‘문화의 소개자’로서 인간지식의 총화인 서적을 모어화(母語化)하여 세계문화로부터 자문화에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하여 자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라면서, 번역의 문화적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방에 앉은 채 세계문화의 각 양상을 원전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여주는” 데 있다면서 번역을 ‘문화적 교량(橋梁)’이라 표현하였다. 국제화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든 정신적 소산이 발생하면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민첩한 번역자들에 의해 각국어로 번역되어 전 인류의 공유물이 되기 때문에 문화는 번역에 의해 ‘폭사적(幅射的)’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sup>43)</sup> ‘폭사적’이란 여러 개의 화살이 폭발에 의해 도처로 뻗어나가는 모양을 형상하는데, 이는 문화가 한 지점에서 여러 지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해 감을 비유한 표현이다. 김진섭은 이로써 여러 나라가 결국 문화의 최전선에서 보조를 맞추어 문명적 발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섭은 이런 사명을 띤 번역가는 외국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외국과 자국 사정에 두루 밝아야 하며, 발전의 단계가 저급한 나라일수록 번역자의 책무는 단순히 문화전달자가 아니라 ‘지도자적 지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문학작품의 번역은 특히 어렵는데,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문학번역에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작품의 숨은 바 표현정신을 파악함으로써 언어의 곤란을 초월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으며, “역자의 보다 높은 이해와 창의력”으로 그런 한계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번역이란 “외국에 일찍이 살고 있었던 ‘정신’을 자국에 재생케 하는 언어변개의 수단”이라는 몰튼의 말로서 결론을 대신하였다. R.G. 몰튼은 괴테와 마찬가지로, 언어가 다른 나라들에서 ‘호우머’의 대서사시가 번역되어 향유됨은 ‘통일체로서의 문학’, 즉 호우머 문학이 지닌 ‘세계문학적 요소 때문’이라고 말하였다.<sup>44)</sup>

43) 김진섭, 「번역과 문화」, 《조선일보》, 1935. 5. (『교양의 문학』(진문사, 1955), 57-60쪽.)

44) 위의 책, 68-70쪽.

「번역과 문화」에서 11개의 장은 일반적인 번역론을 다루고 있다. 반면 12장은 조선의 번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진섭은 조선에서의 번역은 ‘아이우에오’ 번역, 즉 일본어 번역의 중역문제가 끼어있어 복잡한 측면이 있고 그동안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어 번역본들을 통해 선진유럽의 지식과 교양을 쌓아왔음을 먼저 시인하였다. 4장 ‘번역의 문화적 역할’에서도 그는 “조선에는 이제까지 번역문화라 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의 대다수가 해득하는 일어를 통하여 번역의 혜택에 속할 수 있음으로써 세계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다.<sup>45)</sup> 12장에서는 조선인의 교양형성에 공헌한 ‘아이우에오’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의 경우에는 공유자산으로서의 외국문화 특히 ‘아이우에오’어(語) 문화에 대한 관계가 실로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 조선에 있어서의 후자의 보편적 침투세력은 내용에 있어서는 과연 여하한 것을 우리 민족 속에 형성시키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외면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여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단히 문화적 영향을 제공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독자적 문화는 점점 퇴색하여 가는, 퇴색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별단의 성장을 못 보게 하고 있음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인 까닭이다. 너무도 이용되기 쉬운 다른 문화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화는 이제 안색(顔色)을 잃어 침상에 누워 있다고나 할까, 외래적인 것을 수용함으로써 의하여 내재적인 것을 잃기 쉬운은 실로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까닭이다. …… 여기 일의 번역가는 어느 곳에도 번역되지 않은 저작의 최초의 정조를 자기의 소유로 하기는 용이한 일이다. 그러나 또한 이것만이 한국의 문화성장에 영양이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니. …… 이와 같은 조선의 이면적 정세 속에서 약간의 번역, 약간의 소개가 배고픈 우리의 가난한 식탁을 간혹 장식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놓이기가 무섭게 우리의 식욕과는 너무도 거리가 소원한 것으로서 배척되는 것이니, 번역이 그 문화적 가치를 발휘치 못함이 조선과 같은 곳은 없다 하어도 과연 아닐까 한다. 이리하여 여기서 우리가 조금 대담히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조선은 과연 번역가를 통절히 요구하고 있는나는 것이며 요구한다면 또 그것은 어떤 종류의 번역가라야 되느냐는 문제가 아니면 아니 된다.

그러나 상술한바, 조선의 정세에 의하여 추단하여 보면 조선이 막연히 문자적 의미의 번역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만은 명백하나 나의 생각 같아서는 조선은 이제 일의 번역가에게 요구되 항상 번역가 이상의 것을 창조하기를 절망(切望)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요망되는바 문화의 중개자는 너무나 직업적인

45) 위의 책, 55쪽.

번역가는 결코 아니고, 그는 실로 그 자신이 외국문화를 조선적으로 소화한바 창조적 문화 자체가 아니면 아니 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범범(凡凡)히 자기부정의 번역행동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긍정의 전생적(轉生的) 의지에 의하여 세계와 우리 사이에 놓인 넘기 어려운 강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그는 수행하여서 한 개의 새로운 세계를 개시하는 동시에 세계문화의 수준에 대한 거리를 단축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현하 조선에 있어서의 번역가의 문화사적 사명이 이곳에서만 비로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나의 독단에 속할까?<sup>46)</sup>(밑줄은 필자)

그는, 조선인이 원하는 책 대부분이 이미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현실에서 조선의 번역가들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정조(眞摛)의 서책'을 찾아낼 수는 있으나 과연 그런 책들이 조선문화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일까에 의문을 표한 뒤, 과연 조선은 번역가를 필요로 하기는 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대담하게 제기한다.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번역가는 문자적 의미의 번역가가 아니라 외국문화를 충분히 소화한 다음 그것을 조선인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창조적 역량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독자적 번역이 아닌, 창조적 의역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세계와 조선 사이에 가로놓인 강을 넘을 수 있게 만드는 '가교'로서 문화사적 사명감을 지닌 창조적 해설자야말로 조선이 대망하는 번역가의 바른 모습이라 주장한다.

최근 해외문화학과의 번역관을 검토한 논문에서 김연수는 김진섭의 번역관을 괴테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그는 김진섭이 괴테의 번역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괴테가 제시한 '세계문학'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노출하였다고 지적한다. 김연수는 번역이란 번역자가 통일적인 세계문화를 자문화 속에 전유하고자 자국어로 옮김으로써 세계문화에 동일화되는 과정인 동시에 각국의 언어적 경계를 체계화하는 일종의 차이화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그는 김진섭의 경우 근대성이 서구에서 발원하여 세계 도처로 확산해가는 '확산모델형' 문화이해를 보이는데, 그 근거에는 '세계와 보편' vs '조선과 특수'라는 대립구도가 현격히 불균형 상태로 위계적으로 자리해 있다고 비판한다. 김진섭이 기대고 있는 괴테의 번역관은 대화적, 순환적 사유방식에 기초한 것으로, 괴테는 번역을 "자기와의 관계와 낯선 것과의 관계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Bildung(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때

46) 위의 책, 76-77쪽.

나는 낯선 것으로부터 모방하고 배워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낯선 자로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괴테는 이 같은 순환적 구조 속에 번역을 위치시켰으나 김진섭의 번역관은 지역문화에 비해 위계적으로 우위를 점한 세계문화가 일방적으로 ‘폭사적(爆射的)’으로 확산되는 구조여서 괴테의 그것과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sup>47)</sup>

하지만 김연수의 이 같은 비판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조선과 당시 선진 독일과의 문화적 낙차는 건너뛴 채 오늘날의 관점에서 양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 결과라 하겠다. 번역관의 비교에는 그것을 탄생시킨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경제적 발전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이 유럽선진국의 문화적 산물을 조선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역으로 유럽선진국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상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괴테가 가졌던 쌍방향적 혹은 순환적 번역관은 양국의 발전단계가 유사하거나 문화적으로 대등한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괴테의 번역론은 세계적 수준인 자문화의 확산에 주목한 논의이고, 김진섭의 그것은 식민지인이 선진제국의 문화도입을 갈망하는 입장에서 펼친 논의였음이 함께 고려된 비판이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IV. 해방 이후의 정론적 수필들

문학평론이 아닌 김진섭의 수필들은 1937년경까지 특히 사색적 요소가 강한 독일 에세이풍을 띤다. 「창」, 「산보급산보자」, 「명명철학」, 「경중영상」, 「여성미에 대하여」 등이 그러한데, 이들은 그가 호세이대학 독문과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쓴 글들이다. 1938-1940년경에 그는 조선적인 감수성과 서정미학이 극에 달한 「매화찬」과 「백설부」 등을 발표하였다. 이 무렵 그는 60-70원의 박봉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3대가부권자(家父權者)였다. 하여 그는 이 무렵에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주변 이야기를 적은 「범생기(凡生記)」(1935), 「성북동천(城北洞天)의 월명(月

47) 김연수, 「조선의 번역운동과 괴테의 ‘세계문화’ 개념 수용에 대한 고찰: 해외문학과를 중심으로」, 『괴테연구』 24, 한국괴테학회(2011), 123-148쪽.

明)」(1935), 「나의 자화상(自畫像)」(1937), 「제야소감」(1937), 「없는 고향 생각」(1938), 「무형(無形)의 교훈」(1939) 등을 발표하였다.<sup>48)</sup> 여기엔 유년기의 추억과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다. 가부권의 집을 진 생활인과 식민지 문인의 무기력한 낭만이 어우러진 '술'에 관한 수필들도 이 시기에 집중 발표되었다.<sup>49)</sup> 또한 괴테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활철학을 강조한 「생활의 향락」과 「인생은 아름다운가?」 등도 이때 쓰여졌다.

김진섭의 수필세계는 1940년에 겪은 필화사건을 계기로 확연히 달라진다. 이 사건 후 해방이 될 때까지 그는 사실상 집필을 거의 하지 않았다. 선안나가 편집한 『김진섭 선집』의 「작품 목록」에 따르면, 1940년에서 1945년까지 6년간 그는 「생활의 향락」(1940. 10.)과 「주중교유록(酒中交友錄)」(1940. 10.-12.), 「우림림(雨霖霖)」(1941. 7.)이란 단 세 편의 글만 발표하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 그는 다시 붓을 들어 '국가재건'을 위한 정론성 짙은 수필들을 쏟아낸다. 1945-1950년 납북될 때까지 발표된 후반기 수필들은 모두 계몽적 담론들로 채워져 있다.

일단 '필화사건'을 경과를 보면, 그는 조용만의 청탁으로 1940년 1월 6일자 《매일신보》에 임화, 김관과 함께 '구주대전과 문화의 장래'란 제목 아래 「아름은 염려 업다」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글이 게재된 이후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가 반전사상을 문제 삼았다. 이 글에서 김진섭은 정의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조차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간을 살상하고 문화재를 파쇄하며, 전쟁 수행국은 국민의 생활뿐 아니라 경제 활동, 예술인의 활동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기에 전쟁은 근대 문화의 특징인 개성적 발전과 결정적으로 배치된다고 썼다.<sup>50)</sup> 이 글은 총독부의 정례적인 검열을 통과하여 게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 건으로 그는 결국 조선국 헌병대 본부에 출두하여 취조를 받는 등 고초를 겪어야

48) 김진섭은 수필집의 처음과 끝은 자신의 이야기, 즉, 자화상에 해당하는 글이나 모승론, 책에 관한 글 등을 배치하여 자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에 찬』은 「책의 세상」(시)과 「모승론」(수필)으로 시작해서 「나의 자화상」(수필), 「겨울밤에 붓을 들고」(시)로 끝나고, 『생활인의 철학』은 「나의 자화상」과 「생활인의 철학」으로 시작하여 「인생에 대하여」와 「범생기」로 끝이 난다.

49) 그는 7살 때부터 담배를 즐겼고, 「없는 고향 생각」, 『여성』, 1938. 11.) 평생 술을 즐겼다. 술과 관련된 글에는 「취인감허」(1933), 「주찬」(1937), 「제야소감」(1937), 「주봉」(1939), 「망각의 변」(1939), 「주중교유록」(1940) 등이 있다.

50) 『문학사상』 잡지 팀 번역, 앞의 글, 40-41쪽.

했다. 중일전쟁을 앞둔 시점에 일본의 입장에선 그의 반전사상이 문제였다. 하지만 총독부는 이미 검열을 통과하여 총독부 기관지에 실린 글을 문제 삼을 경우 자신들의 검열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격이 되어 이 사건의 확대를 원치 않았다. 또 1930년대 중반, 반(反)파시즘 세계전선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고,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반전사상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가 조사에서 밝혔듯이, 자신은 『개조』에 실린 일본인 학자의 글을 참고하여 이 글을 썼으므로, 그를 문초하면 내지인 학자도 취조를 해야 하는 등,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다. 결국 당황한 일제는 1월 13일에 '서약서'를 쓴 김진섭을 풀어주었다. 조선군 사령부의 보고로 경무국도 조사에 나섰으나 이 사건은 《매일신보》의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sup>51)</sup>

필화사건 후 사서직을 그만둔 그는 경성중앙방송국 제2방송부에 입사하였다. 즉, 이 일로 인해 그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sup>52)</sup> 하지만 그가 쓴 서약서를 보면, 이 사건이 그에게 미쳤을 영향력은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서약서의 내용인즉, 사변 하 중대 시국에 일반 민중을 지도해야 할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자가 국민의 자각을 잇고 외국인이 저술한 문서를 발췌하여 일견 중일전쟁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발표한 것을 뉘우치고 근신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적 견지에서 문필보국에 매진할 것을 맹서한다는 것이다. 중일전쟁을 목전에 둔 시점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반전사상'이 노골화된 글을 발표했음은 일제에 대한 소박한(naive)한 그의 인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도 게재되어 있다.

김진섭은 조선군 헌병대 본부에 출두하여 취조를 받았다. 헌병대가 조사한 경위는 이렇다. 김진섭은 1939년 12월 10일경 조용만의 청탁을 받고 근무하였던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1차 대전 후 독일인 빌헬름 예루살렘(Wilhelm Jerusalem)의 『전쟁과 문화(戰爭と文化)』(Der kriegim Lichte der Gesellschaftslehre, 1915)라

51) 이 사건으로 《매일신보》의 학예부장, 부사장, 편집국장이 해임되었다.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건이 있던 당해에 양대 민족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었다. (『문학사상』 잡지팀 번역, 앞의 글, 40-49쪽.) 녹기연맹의 기관지 『녹기(綠旗)』 1940년 2월호에 녹기연맹 이사 야마타 슈오(山里秀雄)는 「반전적 사상을 박함」이란 글을 실어 김진섭을 비판하였다. (정진석, 앞의 글(2005), 32쪽.)

52) 정진석, 「남북, 피살된 언론인들」, 『돌아오지 못한 언론인들』(대한언론인회, 2003), 36-37쪽. (정진석, 위의 글(2005), 32-33쪽에서 재인용.)

는 책의 일본어 번역판(고오모 고우사쿠(小面孝作) 역)과 『개조(改造)』 12월호에 시모조 유우조(下條雄三)가 쓴 「구주대전의 현지를 보다 歐洲大戰の現地を見る」을 참고로 하여 글을 집필했다. 원고는 12월 23일에 탈고하여 『매일신보』에 보냈고, 1월 5일에 발행된 6일자 제4면에 실렸다.<sup>53)</sup>

위의 인용문은 당시 김진섭을 조사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그는 서약서에 “외국인이 저술한 문서를 발췌하여” 글을 썼다고 했는데, 「조보밀 제8호」에는 그가 참고한 글이 독일인 빌헬름 예루살렘의 『전쟁과 문화』의 일역판과 『개조』에 실린 일본인의 글임이 밝혀져 있다. 그는 해외문화 파로서 외국문학을 일본어 중역이 아닌, 직접 번역을 하겠노라 장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주동과 번역논쟁도 치렀다.<sup>54)</sup> 수필론에서는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수필의 핵심으로 꼽기도 하였다.<sup>55)</sup> 그런 그가 쓴 글이 독일 학자의 생각을, 그것도 일본어 번역본과 『개조』에 실린 일본인의 해설문을 ‘발췌하여’ 마치 자신의 생각인양 썼음을 실토한 것이다. 『해외문학』의 존립근거였던 직접 번역의 소신도 지키지 않았고, 남의 생각을 자신의 의견인양 쓰기도 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의 조사 결과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한학을 익혔고 진중한 성품에 선비의식이 강했던 그에게 이 사건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이다. 사건 후 해방 때까지 약 5년 반 동안 거의 침묵하다시피 그가 글을 쓰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또 이 사건 이후 그는 글에서 외국문인(혹은 철학자)의 말은 정확히 이름을 밝히고 겹따옴표를 사용하여 직접인용으로 차용하고 있음도 이 사건의 여파를 보여준다.<sup>56)</sup>

해방이 되자 그는 「국민의 제전」(1945. 10.)을 필두로 「문화조선의

53) 정진석, 앞의 글(2005), 30-31쪽.

54) 19세기 말 이래 시작된 역사 텍스트의 번역에서 1908년 『소년』이 창간되면서 문학작품이 번역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1918년 『태서문예신보』의 발간을 기점으로 정점에 올랐는데, 이를 한국번역사의 1기로 본다면, 해외문화파의 활동과 ‘가갸날 운동’으로 활성화된 1927년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의 번역활동은 한국번역사의 제2기로 간주된다. 제2기 번역활동의 중심에 김진섭이 있었다. 정인섭, 「가갸날과 외국문학연구」, 『한국문단논고』(신홍출판사, 1959), 25-35쪽.

55) 김진섭, 「수필의 문학적 영역」, 《동아일보》, 1939. 3. 14.-23.(『교양의 문학』(진문사, 1955), 130-131쪽.)

56) 김윤식은 쇼펜하우어, 파스칼, 포이엘박하 등의 발언을 가져와서 논의를 전개하는 김진섭의 수필에서 “동서고금의 명구나 경구가 눈물겹게 혹사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면 이는 그의 철학(관념)에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했다. 김윤식, 앞의 글(1986), 293쪽.



건설」(1947. 1.), 「문화와 정치」(1948. 1.), 「문화한국의 건설」(1948. 1.), 「건국의 길」(1948. 6.)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에서 그는 한결같이 ‘국가재건’을 위해 전 민족이 단합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대하여’란 제목의 수필도 많이 발표하였는데, 「책임에 대하여」(1946. 1.), 「현명에 대하여」(1941. 1.), 「교양에 대하여」(1946. 7.), 「고독에 대하여」(1946), 「청빈에 대하여」(1947. 1.), 「병에 대하여」(1947. 6.), 「의견에 대하여」(1947. 6.) 등이 그러하다. ‘책임’, ‘현명’, ‘교양’ 등을 제목에 내세웠으나 논지는 모두 해방 이후 조선 신문화 건설이나 국가재건에 모아져 있다. 예를 들어 「교양에 대하여」에서는 “참된 교양인이 회소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건국을 위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청년 학도가 교양을 습득하여 자기완성의 길과 국가재건의 길에 동시에 나서자고 주장한다.<sup>57)</sup> 「고독에 대하여」에서는 고독한 존재인 개인은 사회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타인의 고독을 이해하게 된다면서, 누구도 독립으로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일이므로 “운명을 같이할 동포에 대한 정신적 애정, 민족적 포용력”을 발휘하여 국가재건에 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sup>58)</sup> ‘~에 대하여’ 시리즈 외에도 이 시기에 발표한 수필들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문화조선의 건설」에서는 해방으로 조선신문화를 건설하려는 민족의 열망은 지대하지만 아직은 외국의 보편문화 수입이 더욱 중요한 단계라면서, 예술인(문화인)의 각성과 정부의 지원, 민중의 문화애호열이란 3박자가 문화창달의 토대임을 강조하고 있다.<sup>59)</sup> 「문화와 정치」에서는 “문화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일 개인이지만, 그것을 배양하며 형성해 가는 토양은 언제나 민중”이라면서 정치적 지도자와 민중의 상호작용 속에서 좋은 정치, 좋은 문화가 창달될 수 있으니 민중이 판단력을 갖고 어떤 인물에게 정치와 정당의 운영을 위탁할 것인지 잘 선택하여야 하며, 여기엔 민중의 교양과 문화의 정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덧붙여 그는 민중을 좀더 자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야말로 정치가의 신성한 임무라 말한다. 이런 글들에서 김진섭은 정치가와 민중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하고 동반성

57) 김진섭, 「교양에 대하여」, 『국학』, 1946. 7.(『김진섭 선집』(현대문학, 2011), 216쪽.)

58) 김진섭, 「고독에 대하여」, 『우리공론』, 1946(『인생예찬』(문예출판사, 1969), 181-185쪽.)

59) 김진섭, 「문화조선의 건설」, 1947. 1.(『김진섭 선집』(현대문학, 2011), 233-235쪽.)

장의 토대를 조성해 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정론적 수필들에서 해방 이후 그가 문화활동가로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등, 현실 참여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60)</sup>

김진섭이 해방을 기점으로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참여적으로 바뀐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는 해방공간이 이념선택과 국가건설의 기회였다는 사실과, 필화사건을 통해 독일이나 일본의 지식인들에게도 허용되던 반전사상이 식민지의 지식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뼈아픈 자각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밖에도 불행한 가족사가 그로 하여금 침묵을 깨도록 추동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 '보섭'이 1942년에 사망한 사건이 그것이다. 김보섭(金普燮: 1911-1942)은 광주학생의거를 주도한 인물로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일찍 사망했다. 김보섭은 항일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로서 이후 국가유공자 명단에 기재되었다.<sup>61)</sup> 반면, 김진섭의 아버지(金冕秀: 1855-1930)나 형(金曄燮: 1901-1975)은 모두 나주 군수를 지냈다. 그들은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하여 현재까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김진섭 자신의 필화사건도, 아우의 억울한 죽음도, 부친이나 형이 동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나라 없는 민족'이었기에 겪게 된 불행이었다. 때문에 그는 해방을 맞아 40대의 장년으로서 집필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을 때, 일제강점기 내내 도서관의 서사로 책 속에 파묻혀 '생활'의 '예지'를 논하는 수필을 쓰던 과거를 청산하고, 더 이상 서구의 문인이나 철학자를 인용한 사변적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안정적인 '국가의 재건'을 외치게 된 것이다.

해방 이전까지 김진섭은 도서관 사서나 대학의 교수로, 또 수필가로 백면서생(白面書生)의 삶을 살았다. 김윤식이 지적했듯이, 일제강점기 내내 그는 주제가 정해져서 원고청탁이 들어오면 이책 저책을 펴 놓고 책들에 의존하여 글을 썼다. 하지만 필화사건과 비극적 가족사를 겪으면서 그는 진짜 자기생각을 수필에 담게 되었다. 나라를 잃지 않은 민족이었던들 지식인의 반전사상이 필화사건으로 비화될 리 없었고, 나라가 있었던들 아버지와 형이 친일인사명부에 오르는 치욕이나, 동생이 고문 후유

60) 김진섭, 「문화와 정치」, 1948. 1.(『생활인의 철학』(문예출판사, 1966), 282쪽.)

61) 이동순, 앞의 논문(2017), 313-338쪽.

중으로 일찍 사망하는 불행<sup>62)</sup>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그가 수필론에서 말했던 ‘방관자적’ 거리두기는 이제 현실 참여의 쟁점으로 바뀌었고, 수필은 ‘국가재건을 설파하는 정론적 ‘창’이 되었다. 이 시기 수필의 필치도 초창기의 사색적이면서도 시적 감성을 중시하던 데에서 보다 산문적으로 변하고 있다. 해방 당시 경성방송국 편성과장이었던 그는 해방 직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외국문학분과 위원장, 문교부 산하 예술위원회 문학위원, 한국문학가협회 임시의장 등을 맡으며 활발한 사회활동에 나섰다. 그는 우익예술가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외국문학위원회 위원으로서 좌익문인들과도 만났다. 남북 당시 그는 서울신문사 출판국장으로서 《신천지》와 《서울신문》의 발행을 준비하던 중이었다.<sup>63)</sup> 이 시기 그의 주장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영예를 보전기 위해 전 국민이 합심하여 국가를 재건하고 민족정신을 건전하게 양양하자는 것이었다.

## V. 맺음말: 국가부재시대의 외국문학 전공자의 역할과 한계

‘시냇물 소리를 듣다’라는 아름다운 호를 지닌 김진섭은 조선문단이 프로진영 vs 민족진영으로 대립하던 시기에 ‘해외문학과라는 제3의 세력으로 등장하여 우수한 외국문학을 조선에 직접 번역·소개하여 조선신문화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수필가로 한국문학사에 남았다. 1930-40년대, 즉, 국가가 부재(不在)하던 시기에 그는 외국문학을 전공한 수필가로서 현실에서 한발 물러선 자리에서 책 속에 묻혀 몸을 낮추고 관찰하고 사색하는 생활인으로 살아가 하였다. 피테에 기대어 ‘생활철학’을 설파하는 수필들을 썼고, 예술가로서 민족의 현단계 과업에 대해 발언하고 관여하기보다 생활인으로서 허용된 삶 속에서 인생을 향락하며 그런 자신을 “숨김없이” 말하는, 성찰적이고 사색적인

62) 사후에 김보섭은 건국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8년에 대통령 표창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이동순, 위의 논문, 325쪽.

63) 이동순, 위의 논문, 327-331쪽.

수필창작에 몰두하였다. 인생이 아름다워서 찬(贊)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방법이 없기에 아름답다 여기며 사는 '생활술(生活術)로서 '예지'를 강조한 두 권의 수필집 『인생예찬』과 『생활인의 철학』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김진섭의 『교양의 문학』, 『청천수필평론집』, 『김진섭 미발표 수필선』에 수록된 글들을 살펴보면, '나라 없는' 민족의 지식인이 '외국문학'을 전공한 데에서 오는 불균형, 즉, 세련된 감식안과 높은 미적 기준들과 그것에 턱없이 미달하는 자민족 문학의 현실 사이의 간극(gap)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진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또한 웅만한 서구의 책들은 이미 일본어 번역판이 모두 나와 있는 마당에 외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조선에서 조선어로 일역의 수준을 능가하는 직역본을 낼만한 능력도 없었고, 또 그런 책이 남아 있지도 않는 현실 앞에서 외국문학연구자가, 즉, 해외문학과로서 그가 느꼈을 무력감도 행간에 나타나 있다. 독일문학 전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조선인을 위한 『독일어 교본』(1946)을 만들어 독일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설 수 없었던 시절, 외국문학을 전공한 그에게 교양의 문학이 아닌, 사회변혁적 문학담론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무리였을 것이다. 하여 그는 결국 수필에서 길을 찾았고, 수필가로 남았다.

지금껏 김진섭의 수필세계에 관한 논의는 초기수필에 한정되어 왔다. 이 글은 그 한계를 깨고 그의 외국문학 소개문과 조선 문단에 관해 발언한 문학평론들까지도 넓게 보아 에세이(중수필)의 범주에 넣어 그의 수필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간 김진섭 론들이 간과해온 해방 이후 수필들도 고찰에 포함시켰다. 즉, 김진섭 수필세계에 관한 보다 총체적 이해에 다가서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해외문학과 김진섭은 번역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대신 유럽문단을 소개하는 글은 꽤 발표하였는데, 예컨대 토마스 만과 괴테 등의 독일문학과 회랍고전에서 현대유럽문학까지 폭넓게 소개하면서 현 시대의 소설은 시대적 본질을 담지한 '전형'의 창조로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며, 인간과 세계와 사회를 포화하는 '교향악적' 장편창작이 정도(正道)라는 인식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색의 과정인 글쓰기의 가치를 인식하였으며, 해방 이후 수필들에서는 듀이

등의 세계정부론을 비판하고 ‘국민국가’의 창건을 강조하였다. 작가도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을 가져야 함은 그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다. 번역론에서는 현지의 문화적 수준과 언어적 환경을 고려한 창의적 의역을 주장했다. 1940년 필화사건과 1942년 동생의 사망사건으로 잠시 침묵했던 그는 해방 이후 1950년 남북 때까지 일제강점기의 관념적 색채를 벗고 ‘국가재건’에 민족적 단합을 촉구하는 정론적 수필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부재기에 ‘외국’ 문학을 전공한 그가 개인의 삶과 민족의 발전에 ‘국가’란 체제의 수립과 유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처절하게 체험한 때문으로 보인다.

말의 엄정한 의미에서 ‘국가부재’의 민족에겐 ‘외국문학’도 ‘외국’도 존재할 수 없는지 모른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라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국가’란 존재, 또한 ‘민족어’를 경계로 근대적 국가가 구획되는 현실에서 ‘외국문학’을 전공했기에 ‘(외)국어’와 ‘국가’란 개념에 누구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었을 지점에 김진섭이 자리해 있다. 독일에서 유학한 것도 아니고, 일본 동경에서 독일문학을 배워와 일본의 변방에 불과했던 조선에서 그가 해방 전까지 ‘책’과 ‘글(수필)’이란 ‘창’을 통해 민족의 현실이 아닌, 인간 보편의 길을 발견코자 매달렸던 데에는 기저에 ‘국가부재’라는 역사적 조건이 놓여있다. 외국문학을 전공했기에 누구보다 ‘국가’의 존재에 의식적이었을 그가 ‘국가부재’로 인해 필화사건과 가족사의 불행을 겪은 후 해방을 맞아, 부르조아 중심이든 노동계급 중심이든, 즉 이념적 차원 이전에 ‘국가’ 혹은 ‘정부’ 자체의 온전한 수립을 외치는 계몽적 글쓰기에 전력을 경주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 김진섭, 『교양의 문학』. 진문사, 1955.  
\_\_\_\_\_, 『칭천수필평론집』. 신아사, 1958.  
\_\_\_\_\_, 『생활인의 철학』. 문예출판사, 1966.  
\_\_\_\_\_, 『인생예찬』. 문예출판사, 1969.  
\_\_\_\_\_, 『백설부』. 범우사, 1976.  
\_\_\_\_\_, 박종화 서. 『김진섭 미발표 수필선』, 중앙일보·동양방송, 1978.  
\_\_\_\_\_,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 앞선 책, 1994.  
\_\_\_\_\_, 선안나 편, 『김진섭 선집』. 현대문학, 2011.  
\_\_\_\_\_, 류경동 편, 『김진섭 수필 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7.

### 2. 단행본

- 김기림, 『김기림 전집3』. 심설당, 1988.  
이헌구, 『모색의 도정』. 정음사, 1965.

### 3. 논문

- 김선학, 「김진섭 수필 시론: 허약한 지식인과 사변적 구조」. 『수연어문논집』 9호, 1982, 59-68쪽.  
김연수, 「조선의 번역운동과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 수용에 대한 고찰: 해외문학파를 중심으로」. 『괴테연구』 24, 한국괴테학회, 2011, 123-148쪽.  
김윤식, 「비(非)생활인의 철학」. 수필 문우회, 『엽서를 보내는 마음으로』, 범양사, 1986, 289-296쪽.  
김정효, 「칭천 김진섭 고(考)」. 『수필시대』 50호, 문예운동사, 2013, 24-38쪽.  
방민호, 「김진섭 수필 문학과 '생활'의 의미」. 『어두운 시대의 빛과 꽃: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2003-2004』, 민음사, 2004, 161-179쪽.  
이동순, 「한국현대사 속의 가족서사: 수필가 김진섭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9(4),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313-338쪽.  
이병덕, 「현대수필의 문체연구: 김진섭, 이양하, 피천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장인수, 「이헌구와 와세다대학교 문학부 교양주의: 교양, 대중, 엘리트주의」. 『한민족문화연구』 40집, 2012, 341-380쪽.  
정인섭, 「가가날과 외국문학연구」. 『한국문단논고』, 신홍출판사, 1959, 25-35쪽.  
정진석, 「일제말기 《매일신보》 필화의 진말: 일제의 언론 탄압과 우리 문인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기록자료 발굴」. 『문학사상』, 통권 393호, 2005, 22-39쪽.

정희, 「김진섭의 〈인생예찬〉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조운정, 「번역가의 과제, 글쓰기의 윤리: 임화와 해외문학과의 논쟁적 글쓰기」.

『반교어문연구』 27권, 2009, 373-410쪽.

편집 팀 번역, 「김진섭 필화사건 비밀 문건」. 『문학사상』 통권 393호, 2005, 40-49쪽.

## 국 문 초 록

지금껏 김진섭에 관한 논의는 초기수필에 한정되어 왔다. 이 글은 그의 외국문학 소개문과 조선 문단에 관한 평문, 해방 이후 수필들을 살펴 김진섭 수필세계의 총체적 이해에 다가서고자 하였다. 해외문학과 김진섭은 번역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신 유럽문단을 소개하는 글은 꽤 발표하였다. 토마스 만과 괴테 등의 독일문학과 회랍고전에서 현대유럽문학까지 폭넓게 소개하면서 현 시대의 소설은 시대적 본질을 담지한 '전형'의 창조로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며, 인간과 세계와 사회를 포화하는 '교향악적' 장편창작이 정도(正道)라 주장했다. 철학에 관심이 많아 사색의 과정인 글쓰기의 가치를 인식하였고, 해방기에는 세계정부론을 비판하고 '국민국가'의 창건을 주장하였다. 작가도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고, 번역론에서는 현지의 문화적 수준과 언어적 환경을 고려한 창의적 의역을 주장했다. 나라 잃은 민족이라 겪게 된 1940년 필화사건과 1942년 동생의 사망사건으로 잠시 침묵했던 그는 해방 이후 1950년 남북 때까지 일제강점기의 관념적 색채를 벗고 '국가재건'에 민족적 단합을 촉구하는 정론적 수필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부재기에 '외국' 문학을 전공한 그가 개인의 삶과 민족의 발전에 '국가'란 체제의 수립과 유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처절하게 체휼한 때문으로 보인다.

**투고일** 2018. 6. 13.

**심사일** 2018. 7. 3.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김진섭(Kim Jin-seop), 수필(essay), 외국문학연구회(the Society for Research on Foreign Literature), 번역론(theories of translation), 국가부재(stateless nation)



## Abstracts

A Study on the Essays about Introducing Foreign Literature  
& the Essays written in the Liberation Period by Kim Jin-seop  
**Kim, Mee-young**

While previous discussions on Kim Jin-seop are limited to his early essays, this article reviews his essays addressing foreign literature, commentaries on Korean literature, and writings released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Living out the period of a lost motherland, he studied German literature in Japan. With a keen interest in Thomas Mann and Goethe, Kim introduced a wide range of German and other European literary works to Korean readership. His penchant for philosophy is revealed in the speculative and philosophical undertone in his essays. He also believed that writers should have a job to make a living. Regarding translation, he emphasized meaning-oriented creative translation with due consideration of the cultural conditions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linguistic context of the language concerned.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he was critical of the idea of world government and argued for the construction of nation-state. After a brief dormancy from suffering the 1940 incident due to his anti-war writing and the death of his brother in 1942, he wrote essays stripped of abstract tinges often found in his works of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and urging national solidarity for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 until his alleged abduction to North Korea in 1950.